

연구소기업 육성 플랫폼 본격 가동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작... 교육·역량진단 단계별 지원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11일부터 추진되는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전북특구내 연구소기업 육성 플랫폼을 본격 가동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전북특구내 전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두달간 교육 및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초기 연구소기업의 사업과 준비 단계 점검 및 기업진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질 좋은 연구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번째는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R&D 기획, 비즈니스 모델링, 투자유치 및 성장 등 EXIT전략 등 초기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지원한다.

두번째는 연구소기업 역량진단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병행해 기업별 현장방문을 통해 경영, 재무현황 및 기술사업화 준비도 등을 진단해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지원 등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걸쳐 총 2차례 진행되며 상반기에 27개 연구소기업이 참여했고, 오는 9월까지 신규 연구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참여자간 자발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전개, 정보공유 및 시너지 확산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카이바이오텍 김영덕 대표는 "연구소기업 설립 이후 제품개발에만 매달려 왔는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기업성장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

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구본부 박은일 본부장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단계별 육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첫단추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올해말까지 전북특구내 50개 이상의 연구소기업 설립이 기대되는데 후속지원체계를 강화해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전병순 미래산업과장은 "전북특구 연구소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과 교육을 통한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전북특구에서 제2의 클라 B&H 같은 연구소기업이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 부지사는 "새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약취지감 등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약취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특히 약취 포집기는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4차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필요 시설로, 운영 성과분석 및 도내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국비지원에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대비 약취 20% 개선을 목표로 13개 약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열린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

전주에서 처음 열려... 40개 기업 2000여 구직자 참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도, 전주시는 11일 전주대 회관에서 '전북 열린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전주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전주시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군산시 및 김제시, 완주군 등 인근 40개 기업이 현장에 참여해 190여명의 채용 계획으로 이력서 접수 등의 채용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래산업 분야인 3D프린팅, 드론 전시 및 체험, VR&AR 시연 등을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대학생 등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현장에는 직간접 채용관 뿐만 아니라 도내 유관기관 및 취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컨설

팅, 여성구인·구직 컨설팅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진행됐다.

또한, 전주대학교에서 구직자 현장면접 지원을 위해 면접복장 대어를 위한 상상옷장 부스와 커피,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커피트럭을 운영해 박람회에 참석한 참여자들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사전매칭, 면접, 사후관리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으로 행사 당일 채용이 이뤄지지 못한 기업에는 60일간 적절한 구직자를 찾도록 사후매칭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에는 대학생 등 2,0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가해 구직 열기로 가득 차 있으며, 컨설팅 및 취업지원관에도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도내 기업의 다양한 채용정보와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받았다. /인재용 기자

새마을금고, 전북투어패스 구매

송하진 지사는 11일 3,000만원 규모의 전북투어패스를 구매한 도내 MG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전북투어패스 구매 및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대한전통건설협회 전북도회와 도내 게임업체, 상공회의소에 이은 네 번째 전달식이다.

구매에 동참한 새마을금고는 "전북 방문의 해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지역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투어패스를 구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매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말 기준 1,342개 금고와 자산 143조원 규모를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인재용 기자



11일 도청접견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강서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MG새마을금고 전북지사장협의회, MG새마을금고 전북지역본부장 등 관련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투어패스 구매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김일재 부지사, 김제 용지 약취 배출원 현장행정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혁신도시 약취 발생원인 지역인 김제 용지면 소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축산분뇨 등을 대상으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이날 현장행정을 통해 김 부지사는 김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약취 발생 주요공정 밀폐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했으며, 가축분뇨를 액비로 자원화하는 신형 영농조합과 신암마을 17개 폐지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운영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지속되는 약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24시간 약취발생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올 4월 약취배출원에 설치한 무인 약취포집기 운영상황도 점검했다.

김 부지사는 "새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관계기관(부서) 협업을 통해 약취지감 등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 신청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약취지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특히 약취 포집기는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4차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필요 시설로, 운영 성과분석 및 도내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국비지원에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대비 약취 20% 개선을 목표로 13개 약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도, 노인돌봄서비스 맞춤형으로

노인복지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원하시는 우선순위 중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의 욕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노인세대 및 독거노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건강, 영양관리 등에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도, 행정에 행자부 클라우드 시스템 시험운영 맞춤형 모델 발굴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전북도에서도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클라우드를 행정업무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 클라우드 시스템 시험운영은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에 앞서 전북도에 맞는 맞춤형 업무환경 모델을 발굴하고 최적의 사용 시스템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자리잡을 경우, 원격근무와 변동좌석제 등 스마트 워크가 가능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속한 행정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대민 서비스의 품

질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개인 저장매체로 인한 정보유출 등 보안 문제가 최소화되고, 무분별한 대용량 메일 전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자원 낭비 문제를 없애고, 자료의 취합 및 배포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통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더 나아가, 중앙부처로부터 기관표창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자체 중 선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재난대비상황과 및 AI 구제역 방역분야에도 클라우드의 신속한 정보 전달력과 협업기능을 도입,활용해, 상황처리를

위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클라우드 시스템의 행정정보 자원(서버 등)으로의 확대를 위해 전북도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컨설팅을 통해 30% 이상의 정보시스템 자원의 최적화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업무환경 조성, 공유 협업활성화, 업무의 모바일 환경구축 등을 업무전반에 실현해 시스템 운영 비용절감과 업무효율이 기대 된다. /인재용 기자

도내 김 생산 가구당 평균소득 2.1억원

지난해 대비 생산량 20.8% · 생산액 37.6% 증가

전북도의 올해 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8%, 생산액은 3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당 평균소득은 2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1억5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의 김 생산량, 고창, 부안 등 3개 시·군 김 양식장(4,584ha)에서 생산된 김 생산량은 계획대비 12.6% 증가한 3만 7,193톤이다.

김수출 호조 및 전남지역 김작황 부진(갯병 발생 등)으로 김 가격이 평년가를 크게 웃돌아 전체 생산액은 446억32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6,394톤, 생산액은 121억 8700만원 늘어난 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시 3만 3,201톤(89.3%), 397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안 3,032톤(8.1%), 27억8000만원, 고창 960톤(2.6%), 21억1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